

# 현대의 언어사상 잉태시킨 소쉬르

## 언어의 본질에 다가간 20세기 인문학의 새로운 전망

김성도

고려대 교수 · 언어학



**“기호학은 언어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나는 언어를 무엇보다 하나의 기호체계로 보았으며 기호체계에는 언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현상과 제도들도 포함된 사실을 꿰뚫어보았습니다.”**

소쉬르

때는 1912년 5월의 어느 날. 소쉬르가 저 볼 후의 기념비적 작품 《일반언어학》을 강의했던 스위스 즈네브 대학의 강의실. 한국의 소장 기호학자 김성도는 15년 전부터 연구해온 소쉬르 선생과의 가상 대화를 갖기 전에 시간여행을 하여 그의 강의를 경청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맑고 투명한 어조, 전치사 하나까지 배려하는 정치한 언어 구사, 눈이 부실 정도의 푸른 눈빛, 사물을 투시하는 눈매, 짙은 눈썹과 근엄한 구렛나루, 귀족적 이미지의 뛰어난 외모는 학생들의 혼을 사로잡고 있었다. 수강생은 교착 열명 인פק이었지만, 20세기 인문학의 새로운 ‘퍼스펙티브’를 열어줄 언어사상의 잉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강의가 끝나자, 소쉬르 선생은 반갑게 한국에서 온 젊은 학인을 맞이하였고, 장소를 옮겨 즈네브로부터 약 20km 떨어진 아름다운 고성이자 소쉬르 가문의 유산인 뷰플랑 성으로 안내하였다. 소쉬르 선생은 바로 이곳에서 언어의 본질에 대한 심오한 성찰과 집념에 빠지곤 했으며, 1913년 2월 22일 55년간의 생애를 마감한 곳도 바로 이곳이다.

### 선사 언어학의 대가 픽테의 영향

김성도 —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렇게 선생님을 뵈고 보니 한마디로 감개무량합니다.

이제 선생님과 저는 시간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시대로 또 선생님이 저의 시대로 쌍방통행을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보겠습니다.

소쉬르 — 그저 아주 흥미로운 제안이군요.

김성도 — 선생님의 집안은 스위스의 명가로 그 명성이 자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안의 내력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말씀 들려주시지요.

소쉬르 — 제 조상님들은 정치적 박해를 피해 16세기 때 프랑스로부터 이곳 즈네브로 이민해 정착했습니다. 증조부님인 호라체 베네딕트(1740~1799)는 식물학·기계학·지질학에 조예가 깊었으며, 특히 세계 최초로 몽 블랑 등반에 성공하신 관록을 갖고 계십니다. 조부 니콜라스-테오도르 소쉬르(1767~1845)는 물리학자이자 화학자로서 즈네브 대학에서 지리학과 광물학 교수를 지내셨고, 부친이신 앙리 드 소쉬르(1829~1905) 역시 지질학에서 두각을 나타내신 학자로서, 미국과 멕시코를 탐험하여 다양한 광물들을 채집하셨습니다. 아버님은 바로 귀국하시어, 즈네브의 명가문인 푸르탈레스의 한 여인과 결혼하셨고, 저는 두분의 장남으로 1857년 즈네브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김성도 — 선생님의 말씀대로라면, 선생님의

조상들은 모두 자연과학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나타내셨다고 볼 수 있는데, 선생님만 유독 언어학이라는, 당시로서는 생소한 인문학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소쉬르 — 저 역시 부모님의 권고로 즈네브 대학교에 입학하여 물리학과 화학을 수강했습니다. 하지만 채 일년도 못돼서 나의 적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판단을 내리고 곧장 당시 비교역사 언어학의 ‘베가’인 독일의 라이프니츠 대학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꿈이 따져보면, 언어학과 나의 인연은 소년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최고의 고생물학자이자 선사 언어학의 대가인 픽테 선생님이 바로 나의 첫번째 가정교사였다는 사실이 내 운명을 결정지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모든 지적 교육은 물론, 과학적 체계성의 중요성을 배웠지요. 특히, 14살 때 작성한 최초의 언어학적 시론을 바로 픽테 선생님께 헌사할 정도로 그분에 대한 존경심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김성도 — 그 후에 선생님의 유학 생활은 화려하게 장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19세에 이미 파리 언어학회에서 인구어의 모음 a에 대한 독창적 논문의 학문적 가치를 인정받아 정회원으로 추인받았으며, 약관 21세에 선생님은 불후의 명작인 석사 논문을 학계에 내놓아 역사 언어학의 지각변동을 가져왔습니다. 도대체 선생님의 이같은 천재성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쉬르 — 과찬의 말씀입니다. 물론, 독일에서의 제 연구성과는 저 자신도 놀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 논문의 제목은 〈인구어에 있어서의 원시 모음체계론〉이었는데, 언어학사상 처음으로 저는 언어학의 단위를 순전히 대립적이며 관계적인 실재로, 즉 고립된 원자들이 아닌 단위들 사이의 체계적인 공기능성으로 부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모두가 우호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당시 실증주의적, 역사주의적 학풍을 철옹성 같이 견지하며 학계의 패권을 잡고 있던 독일의 소장 문법학자들은 저의 저작을 일러서 ‘철저한 오류’라고 힐난하였습니다.

김성도 — 당시 언어학의 공식적 대표자들로부터 받은 그같은 비난은 선생님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쉬르 — 사실을 고백하자면, 당시 제 앞을 가로막은 저항을 극복할 힘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사논문을 받은 후로는, 언어연구를 잠시 포기하고 독일의 신화연구에 매달렸지요. 대략 1880년을 전후로 저의 지성사에는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인도 유럽어 형태들의 구조라는 문제를 포기하고 전형적인 비교 언어학의 연구로 만족하며 지냈지요. 예를 들면 범어와 고트어, 세미트어와 같은 사어들의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 현대 언어학의 인식론적 토대 마련

김성도 — 선생님의 뜻과는 상관 없이 사후에 출판된 명저 《일반언어학 강의》에서 제시하려 했던 궁극적인 언어 사상은 무엇이었나요?

소쉬르 — 먼저 그 물음에 답하기 전에, 제 학문적 태도와 취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사물의 궁극적인 바탕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려는 습관을 선천적으로 타고났습니다. 언어적 실재에 대한 구조화되고 체계적인 성격의 규명을 위해서 저는 언어에 대한 변증법적 사고를 도입했습니다. 언어의 개인성/사회성, 물리성/심리성, 진화성/현재성 등 언어의 영속적인 양면성을 극복하고 양자의 상호 종속성을 인지하며, 언어학의 고유한 대상을 설정하기 위해서였지요. 특히 체계라는 관념은 정태 언어학과 진화 언어학을 구분시켜준 동시에, 체계와 그 실현의 관계를 지각하는 것을 가능케 했습니다. 바로 내가 랑그와 파롤이라고 명명한 언어의 두 가지 존재 양태가 그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강의는 현대 언어학의 인식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보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김성도 — 그렇다면 강의에서 제안한 ‘사회적 삶’의 한 복판에서 기호들의 삶’을 연구하는 분야로 상정한 기호학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소쉬르 — 기호들의 일반 이론으로 볼 수 있는 기호학은 이미 내가 1901년 이전에 착상했던 분야입니다. 그것은 언어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나는 언어를 무엇보다 하나의 기호체계로 보았으며, 기호체계에는 언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현상과 제도들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꿰뚫어보았습니다. 이같은 언어의 기호학적 사실은 내 언어사상의 진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또한 기호학의 제1원리로 제

# 책과 오대리

박 시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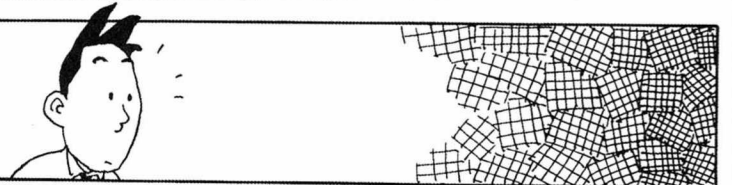
어린이 날이래봐야 그저 하루 학교 안가는 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지.



그런데 3학년 때인가, 어린이 날 선물이라며 아버지께서 동화책을 한권 사들고 오신거야



얼마나 기뻐던지... 난 그책을 읽고 또 읽고해서 다 외워버렸단다.



“사후에 출판된 명저 《일반언어학 강의》에서 제시하려 했던 궁극적인 언어사상은 무엇이었나요? 또 강의에서 제안한 ‘사회적 삶 한복판에서 기호들의 삶’을 연구하는 분야로 상정한 기호학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김성도 교수.

시한 기호의 자의성 원리는 기호와 제언어의 물질적 측면과 의미적 측면과 관련됩니다. 기호의 의미란 오직 체계 속의 다른 요소들과의 관계에서만 가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생각은 의미와 소리를 따로 나누어 생각하고, 하나의 기호가 선행하여 존재하는 사물과 관념을 표현하는 매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적 언어관과 철저히 단절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저의 이론에서 언어 기호의 양면을 이루는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실질이 아닌 형식, 즉 가치 체계를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 언어의 일반적 본질에 회의적

김성도 — 선생님을 만나되면 꼭 여쭙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대체 선생님께서 것처럼 중요한 생각을 제시한 사상을 왜 책의 형식으로 출판하지 않으셨나요? 어떤 호사가 선생님이 저술 공포증에 걸렸다는 가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소쉬르 — 저는 모든 강의 때마다 강의록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완벽주의적 괴벽으로 매번 강의원고를 폐기시켰습니다.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일반언어학 강의》를 보고 있노라면 마치 제가 언어의 문제에 대해서 명료하면서도 확고부동한 이론적 틀을 제시한 것과 같은 이미지를 주지만, 정작 저는 언어의

일반적 본질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고, 또 때로는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론적 명제들의 총합을 적합하게 제시하려면 결정적인 출발점을 채택해야 하는데, 언어학에서 그 자체로 규정된 언어적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저는 언어학에서 하나의 결정적인 질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김성도 — 이같은 선생님의 회의적 태도는, 고대 라틴 시조의 법칙을 발견한 아나그람과, 신화와 전설을 기호학적으로 분석한 니벨룽겐 연구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소쉬르 — 아나그람에서 분명히, 하나의 텍스트를 표층적 독서와 아울러 심층적으로 읽어 나가는 데 성공했고, 시인들이 전하려는 의미를 표현하는 음성들이 산포되는 법칙들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완벽주의적 근성은 또다시 고개를 들었고, 저는 이 법칙을 만든 시인들의 의도성 여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내 뜻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김성도 — 선생님의 삶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신비에 감싸여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소중한 만남의 시간이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쉬르 — 저에게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